

저고리 마름질 꼴과 십승지의 기호학적 유사성 연구

정 옥 임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 Study on the Semiological Similarity between Sipseungji and the Cutting Shape of Korean Jǒgori

Ok-Im Jung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Chosun University

(투고일: 2008. 4. 7, 심사(수정)일: 2008. 9. 30, 게재확정일: 2008. 10. 15)

ABSTRACT

In the late Joseon period, as Korea suffered from two battles such as Byeongjahoran and Imjinweran, the people wanted to find comfortable shelters, which caused Bigi to prevail. That is, as an alternative to find a shelter which is physically prosperous and mentally comfortable and to get out of turbulent days, the people desired the utopian world of Sipseungji. The Sipseungji of 'Namsako' was deeply rooted in the society, which had a great impact on it. However, it is very surprising to find that the Sipseungji is metaphored in the process to make the shapes of Korean Jǒgori which are a represented product of our culture. In other words, the ideal world we desired is a clothe itself which wraps human bodies, not any mysterious place that can not be found. They wanted to deliver the assumption that the ideal world is in humans themselves through clothes. Though a shaman sign of Sip (meaning ten), the Sipseungjiseol of Namsako became rooted in the living of the common people, which caused social confusion, but the Sipseungji suggests that as humans are the very lucky place, the utopian world is in themselves. Therefore,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shapes of Korean Jǒgori have instructional values that can not be found in those of other foreign cultures.

Key words: Korean Jǒgori(저고리), cutting shapes (마름질꼴), utopian world and sipseungji (이상세계와 십승지), semiologic similarity(기호학적유사성)

I. 서론

한 벌의 민족의상에는 영토와 사회집단의 깊은 뿌리가 있고, 민족적 종족을 식별해주는 기능은 민족내의 관계와 가치기준과도 합치된 상징으로 나타난다.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며 시대의 보편적 양식을 지니면서 습득되고 전승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의 특성에 부합되는 문화의 한 요소인 의복은 인간의 생활감정 등의 내적특성을 반영하여 표현된다.

그런데 그 표현된 대상물이 인체를 감싸는 의복의 형태에 숨어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의복에 표현된 상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외적인 것, 즉 질감, 소재, 색상, 구성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모든 의복이 사각형에서 출발하지만 형태를 나타내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마름질로 나타내는 기호로서의 상징은 입체적 구성보다 평면적 구성일 때 표현하기에 더없는 조건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 한복 저고리는 본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마름질에 상징적 기호를 나타내기에 좋은 조건이었다고도 본다.

이 기호학적 내재성은 앞이나 뒷, 옷고름 같은 부분적인 것을 제외하고 몸판의 마름질된 옷 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의복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의 기모노는 앞·뒷길이 연이어 마름질되므로 우리 저고리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없으며, 몽고복식에서 옷 꼴이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원시샤먼들이 입었던 袍도 목둘레를 오려낸 것이 우리 저고리 마름질법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사각형이라는 핵을 단위로 하여 분화되고 증식된 저고리제도 법에는 기후와 옷감 폭의 영향도 있었지만 옷감 폭이 넓어진 후에도 저고리 마름질 방법에서 나타나는 봉합선이 변화 없이 옛 방식 대로 유지 전승되어오고 있음은 그 속에 내재된 기호학적 상징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기호는 의미작용의 단위이며 동시에 의사전달의 단위가 되는데 때로는 실재에 대한 표상으로 그 뜻

이 정확하도록 의도된 것이 있는가 하면 덜 명확하지만 우리의 내면적, 심리적, 정신적인 세계와 관련된 측면의 상징적 표현도 있다.

이것은 문명이 생긴 이래 두루 사용되어 왔음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따라서 상징의 중요한 효능은 의문의 여지없이, 그것이 자신의 상태를 벗어나려는 모든 인간의 신비한 욕구의 구체화된 반응이라는 데에 있다¹⁾ 그 때문에 복식은 미학적 조형성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의의와 철학이념, 그리고 가치관을 담고 있다고 말 한다.

지금까지 의복으로 나타내고자했던 우리 옷에서의 기호학적 상징에 대한 연구는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에 나타난 복식의 상징성²⁾과 한복의 구성면에서 본 상징성³⁾, 이재일, 박춘순⁴⁾의 우리나라 기녀복식의 기호학적 접근과 정옥임⁵⁾의 남자한복바지의상징성연구, 喪服에서의 상징성연구⁶⁾가 있고, 정혜경, 권영숙 a⁷⁾의 易을 통하여 본 深衣의 상징성과 조선시대 저고리의 구성 원리에 관한 고찰⁸⁾등과 같이 형태나 구성을 통해 다소나마 이루어져왔을 뿐 옷 꼴을 만드는 마름질 법을 통해 이루어진 기호학적 상징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이라는 記號에, 마름질 꼴이라는 記標를 통해 심승지라는 記意로 우리 저고리 마름질법과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심승지와 유사점을 비교 고찰해보으로써 옷꼴을 만드는 마름질법에 유토피아라는 상징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 저고리 마름질 꼴에 내재된 철학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의복에 깃든 정신적 가치를 복원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조선시대 南上古(1509-1571)가 썼다고 한 '格菴遺稿' 중 저고리 옷꼴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田田歌, 弓乙歌, 弓弓歌, 乙乙歌, 落盤四乳歌, 十姓歌를 중심으로 하였고, 시대적 배경은 1: 禍와 兩亂으로 민심이 어수선하여 '秘機'가 유행하던 조선중기 이후로 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해석에 의미가 다양하여 종교적 색채 및 길이나 크기, 구성소, 조형성 등을 배제한 기본 저고리 마름질꼴만을 다루었다.

II. 이론적 고찰

1. 저고리의 변천과 구성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차별화된 문화를 들어 본다면 복식문화, 특히 전통복식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저고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인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복이라도 나라마다 그 구성상 형태가 다름은, 물론 기후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나라 고유의 생활문화, 그 속에 깃든 어떤 철학적 상징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민족복은 종족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 부분에도 몸의 부분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역할과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술기에도 부분과 부분을 연결하여 옷을 구성하는 역할과 사람의 정신적 내면생활의 철학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⁹⁾

우리민족의 기본적인 의복이었던 저고리는 상고시대에는 襦, 尉解라고 했고, 고려시대에는 衣, 衫, 襦, 襖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衫, 汗衫, 赤古理, 결막이, 胴衣襟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구성은 길, 소매, 섶, 깃, 동정, 고름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의 저고리 형태는 직령에 둔부선 까지 내려오는 길이와 좁은 소매통이던 것이 삼국시대 이후에는 앞을 여며 입은 전개 교임형에 엉덩이를 가릴 정도의 길이에 허리에 띠를 두르고 깃과 섶, 끝동에는 주술적이며, 계급상징의 의미와, 봉제구성을 보완하기 위한 선이 가해졌고, 통일신라시대는 短衣라하여 저고리 길이가 다소 짧고 깃과 도련에 선이 둘러진 폭이 넓은 廣袖衣였다. 이 형태는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특히 이때에 저고리 고름이 생겨나기도 했고 선이 없어지고 겨드랑 밑 양옆에 옆트임이 생기고 동정이 생겨나기도 했다. 고려복식을 계승, 발전시킨 조선사회에서도 저고리의 원형은 상대의 기본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조선전기의 저고리는 허리를 가릴 정도의 길이와 넉넉한 품, 넓은 목판깃 형태의 섶 구성과 직배래 형태의 소매와 넓은 진동이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 중기 이후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여 16세기 후반 이후는 깃이 반목판깃의 형태로 변화되었고, 소매도 직배이던 것이

곡배로 나타났다. 그리고 17세기 초에는 당코깃이 등장하여 18세기 까지 계속되다가 19세기 말 부터는 오늘날의 동그래 깃으로 변천되었다.¹⁰⁾

복식에 이러한 전환점을 부여한 계기가 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었다. 이 兩亂은 의복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사회 전반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향악이 널리 퍼지고 서원이 설립되어 일반 백성에게도 유교적인 정신이 널리 전파되어 양반체제에 동요가 있게 되고 신흥 상인들의 대두로 신분관이 변모하여 세습적 신분제도가 붕괴됨으로 인해 복식에 의한 신분계층 구별이 약화되었다.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져서 허리위로 올라가게 된 것은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농업생산력의 증대에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많은 노동력의 수요가 있었고, 긴 상의 보다는 짧은 상의가 노동하기에 적합하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상의가 짧아진 것¹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떻든 저고리는 부분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즉 크게는 길이의 변화이고 부분적으로는 조형성을 가미했다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옷꼴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 등술, 어깨술, 섶, 깃과 소매의 직배 또는 곡배 등은 그 구조 그대로이다.

원래 의복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기후가 되겠지만, 만들고자 하는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옷감의 폭으로, 이것은 마름질 꼴을 결정하고 마름질에 의해서 생기는 옷 꼴, 즉 옷의 모양을 만드는데 제한적으로 관계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러다보니 옷감의 폭으로 감쌀 수 없는 부분에는 봉합선을 만들어 폭을 잇대어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은 옷감 폭이 옷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옷감 폭이 만들고자 하는 신체치수보다 적을 때는 구성방법에서 봉합선인 술기가 당연 생기게 되는 마름질을 하게 된다.

오늘날처럼 직기가 발달하지 않은 옛날 재래식 베틀에서 생산하던 무명베나 모시 베, 삼베의 폭이 새(날실의 올수)가 많은 경우는 30cm폭이나 대개는 33cm~36cm가 보편적인 점을 감안하면 전통한복에서 등술선이 있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러

한 옷감 폭의 영향도 있었다고 본다. 여기에는 당시의 기술로 좁은 폭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한계도 있었겠지만 네 폭을 이용하여 만들어 지도록 한 구성방법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것은 오늘날처럼 廣幅의 직물이 생산되는데도 아직도 그 유습은 전승되어 저고리 구성에 등슬선이 들어가도록 마름질 된 것을 보면 디자인 요소로서의 선이나 구성상 나타나는 선만이 아닌, 내면에 혼재된 어떤 것 즉, 그 속에는 자연과의 합일에 영향을 받은 동양의 사교가 누구나 착용하는 의복을 통해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내고자 했으리라고 본다.

2. 기호로서의 의복

기호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스위스의 기호학자 소쉬르(Saussure)는 기호학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호들의 삶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생활 속의 모든 사물은 기호이며 인간은 기호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기호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한다.¹²⁾ 따라서 기호는 상징체의 기본이고 기호학은 상징체의 창조와 의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즉 기호를 활용하여 논리의 구조를 밝혀려는 학문으로 다중의 의미를 가진다. 사전적 의미로서 기호란 '무슨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적는 부호, 또는 문자, 기호 표시 따위의 총칭'¹³⁾이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대체로 文語 및 口語, 이미지 혹은 동작의 형태를 취한 기호에 의존¹⁴⁾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물들의 존재가 무한하기 때문에 사회는 생각과 사물의 존재와의 관계를 나타낼 음성, 그림, 글자 등의 기호를 만들어 의미전달을 했던 것이다. 이렇듯 기호들이 인간의 삶과 깊숙이 얽혀있기 때문에, 기호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을 이룬다. 철학이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고, 심리학이 인간의 정신구조를 탐구하는 기본 학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호학은 인간이 다루는 모든 상징체의 구조와 그것이 체현하는 사상성을 탐구하는 학문¹⁵⁾인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며 사회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호는 의미작용이 이루어지려면 기표와 기의의 결합작용이 있어야 한다.

롤랑바르트는 '동일한 대상으로서의 한 가지 의복은 세 개의 상이한 구조, 즉 기술구조, 도상구조, 언어구조가 있는데, 기술구조는 실제의 옷을, 도상구조는 영상적인 옷을, 언어구조는 글로 쓰여진 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기호로써 의복이 기호 수신자들에게 호소되기 위해서는 '옷' 그 자체가 아니라 옷이 지니고 있는 의미 때문이라고 했다.¹⁶⁾

사실상 실제의복은 하나의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 즉 의복이라는 기술적 구조는 도상적 구조인 옷본으로 전환되고, 언어적 의복으로 전환되기 위해 제작이라는 재봉법을 통해 의복의 제작과 존재, 의복의 근원과 형태, 기술과 의미작용사이의 과도적인 언어로 전환된 후 언어적 구조인 표상된 의복에서 묘사된 의복으로 이행된다. 따라서 인간이 착용한 의복은 세상의 어떤 활동과 서로 연결하는 의미를 만들어 내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때 의복은 기호가 된다. 기호의 생명과 기능은, 그것이 세계 안에 있는 사물들을 표상하고 인간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심리작용을 일으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상징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물, 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 낸 것이나 그 대상물을 말한 것으로, 이때 의미작용을 창출해 내는 의복기호는 상징이 된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전달의 발생적 기저에서 보이는 모든 대상들 중에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인간의 오감에 미치는 범위내로 끌어들여 일체감을 얻고자 하는 비언어적, 감각적 표현양식이 있는가 하면 존재의 의미를 형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의미만을 전승하는 기호로서의 상징도 있다. 따라서 의복에서의 기호학은 실제성을 보이기보다는 이미지를 보여 준다.¹⁷⁾ 이것이 동양에서는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 사유철학이 생활 속에 깊게 자리하게 되어 의복도 입기위한 것 이상의 표현의지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동양에서는 인체를 우주의 축소판으로 보았고, 그 때문에 인체가 입는 옷에 옛 부터 상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음을 연구논문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 특히 복식의 형태와 색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음양오행설이 그 중의 하나이고, 우주관이 내포된 喪服의 구성이 그렇다. 상복에는 가깝고 먼 친척을 옷감조직을

통해 표현했고, 또 死者가 하늘에 오르는 天界上昇을 제비꼬리 형상¹⁹⁾의 구성형태로 만들어 과거에 샤먼이 수행하던 일을 喪主가 대신한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복은 의미전달의 기호로써 이용되었던 것이다.

옛날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우주관을 보면, 하늘에 의해 만물이 만들어지면(天工) 사람은 기술(人工)로써 그 쓰임새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人工은 天工을 본뜬다. 즉 자연에 인공을 가하거나 자연을 이용하여 유익한 것을 만들어 내는 손재주, 곧 기술이 상고시대 성인, 현자들에 의해서 시작¹⁹⁾되었는데 좋은 기물을 만들려고 하면 하늘의 時, 땅의 氣, 재료의 美에 工人이 가진 기술(巧)이 맞아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재료가 아름답게 가다듬어져 있고 工人의 기교가 훌륭할지라도 좋은 기물을 만들지 못하는 까닭은 하늘의 時와 땅의 氣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만드는 기교가 우수할지라도 자연과 환경이라는 외적조건이 적합해야 비로소 좋은 기물을 만든다는 것인데, 우리 한복은 바로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天工을 본떠 옷꼴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옷 꼴이란 옷의 모양으로 옷감을 마름질함으로써 결정²⁰⁾되는데, 옷 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선은 인체이지만 인체는 하늘을 본뜬 소우주라고 보기 때문에 소우주인 인체에 담겨질 옷 꼴에는 우주와 합일하려는 인공적 염원이 들어있으리라고 본다. '우주와 인간은 근본에 있어서 공통된 법칙을 따르고 있어서 소우주인 인간과 대우주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곧 동일한 법칙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한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통하는 통로가 열려있는 것이며, 사람의 심령과 우주는 내적세계와 외적 세계로써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모든 우주적 事象에 참여하며 외면적일 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우주와 같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²¹⁾ 이것은 위대한 天工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人工이 성취된다고 보는 견해로 인해 天工의 절대적인 우위를 밑바탕으로 하여 하늘과 사람의 조화가 중국과 동양의 문화 전반의 밑바탕을 이룬 사상이 되었다고 본다.²²⁾ 즉 자연관에 영향을 받아 본

연의 자세를 찾아내려는 방향이 우리 한복 저고리의 옷 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Ⅲ. 십승지와 저고리 마름질 꼴에 대한 분석

1. 십승지 출현의 사회적 배경.

南士古(1509-1571)는 조선 명조 때의 사람으로 호는 격암, 본관은 의령이며 천문, 지리, 복서에 능해 1596년에는 천문학교수로 임명될 정도로 탁월한 한시대의 異人이었다²⁴⁾ 그가 살았던 당시는 임자, 병자호란의 잦은 병화로 인해 고통스러운 현세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민중들이 굶주림이 없고 병화를 피할 수 있는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樂土, 沃野, 十勝地와 같은 유토피아를 추구했다. 굶주림이 없고 兵禍를 피할 수 있는 선택된 땅이라는 의미로서 勝地는 원래 풍수지리설에서의 吉地관념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고려 이후 풍미했던 圖讖說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즉 도참설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임병양란의 여파로 민심이 이반하면서 <정감록> <남사고비결> 등 각종의 秘機를 통하여 말세론 및 왕조교체설로 전개되는데 이때에 난세를 무사히 지낼 수 있는 땅으로서 십승지설이 유포되었던 것이다²⁵⁾ 십승지와 관계된 어휘들로는 <山海經>에서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沃野, <詩經>의 樂土, 도교문화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洞天福地, 이와 비슷한 仙境, 그리고 十勝之地 등이 유토피아와 상관된 어휘들이다.

'이 세상에 없는 곳'과 '좋은 곳'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진 유토피아는 秘機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왔는데, 秘機란 풍수지리, 음양오행에 관한 책들로 인간의 길흉화복이나 국가 장래에 관하여 도참사상 및 음양오행설에 의해 쓰여진 예언적 기록들로 천문, 曆算, 음양, 占候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後漢書 <楊厚傳>에 비기에 관한 내용이 처음 나타나 춘추전국시대에 음양오행 학이 깊이 연구되고 도참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비기에 관한 사상이 형성되었다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신라 말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고려 때 도선의 도선비기가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와 풍수설, 그리고 도참사상이 사회를 이끈 주도적 사상이었다. 태조의 훈요 10조에서도 풍수적 사고관념이 잘 나타나 있다.²⁶⁾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시대에는 풍수에 관심이 높아져 과거시험에도 陰陽科를 설치하여 地官을 뽑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사대부가에서는 풍수지리학을 모르고서는 행세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가 권위를 잃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되자 사회 전반에 걸쳐 이 같은 이상사회에 대한 갈망이 확산되었다.

형식과 규범이 절대적 권위와 의미를 갖는 경직된 사회의식에서 해방감을 만끽하고자 하는 잠재된 욕망의 표출의지가 이와 같은 避亂, 保身의 장소를 지향하게 했고 당쟁과 사화 및 전란의 고통이 많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현실정치의 고통을 맞보게 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 같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세계를 염원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이상사회 즉 십승지설이 널리 민간에 유포된 데에는 십승지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조선중기의 풍수가인 남사고와 <택리지>의 저자인 이증환 등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²⁷⁾

2. 十字와 十勝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십(十)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나라나 민족에 따라 다양하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부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천국으로 오르는 계단 표시요, 페르시아에서는 불을 일으키는 두개의 막대라 하여 불의 神을 상징했고 이집트의 상형문자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교차를 十字로 보고 사랑과 풍년을 뜻하였다.²⁸⁾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을 한 그루의 나무로 묘사하여 우주목으로 상징하였고 <복음서강화>에서는 십자가를 “대지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나무”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사는 온 땅의 버팀목이자 우주의 위를 고리로써, 인간의 온갖 잡동사니를 그 안에 품고 있다²⁹⁾고 보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문문화권에서는 十은 동서의 가로축과 남북의 세로축이 교차된 그 모두-곧 우주 삼라만상을 뜻하였다. 그래서 十은 그

모두를 완벽하게 갖춘 전부다. 十자가 일체의 재화를 물리치고 福幸을 불러들이는 符籙으로 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³⁰⁾

따라서 십승지에서 ‘十’은 그 모두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勝地’는 고려시대 도참설에서 유래한 살기 좋은 곳을 말함으로 ‘十勝地’라 함은 이상세계를 뜻한다. 그런데 십승지에서의 ‘十’이 동·서·남·북의 중심이라고 할 때, 이 중심은 祭儀적으로 구축된 신성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화적 지리학에서 신성한 공간은 본질적으로 실제적인 공간³¹⁾ 즉, 삼라만상을 담은 공간을 생각했던 것이 사각형이라는 것이다. 고대의 聖所, 寺院, 祭壇이 그 예인데 이 ‘聖’이 그 종교적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서, 때로는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이 ‘중심’의 상징은 풍수적, 건축적, 도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³²⁾ 성스러운 곳에 적용되던 삼라만상, 즉 十字를 담은 사각형이 풍수적으로 이용되어 건축에도 적용되면서 사각형 속의 十字는 氣의 흐름을 나타내는 통로, 도로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동·서양에서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중국인들은 지구가 정방형 모양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전담과 가옥, 그리고 마을을 모두 正方形原理에 따라 만들었으며,³³⁾ 켈트족은 지구가 正方形모양이라고 생각했고, 마야인들은 모든 사물을 네개의 基本方位와 관련지어 생각했고 기본방위들은 사방을 표시하는 십자형이나 단차진 공간을 나타내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 안에 그려 넣었는데³⁴⁾ 이는 동양에서 인체를 우주로 보는 견해와도 일맥상통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체에서 머리는 둥글어 하늘을 뜻하고(圓) 몸통은 네모져서 땅을 뜻하며(口), 다리는 세모로 인간을 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方形은 몸통을 감싸는 옷감이 되면서 팔의 형상을 연결하여 감싸기 위한 형태가 만들어 지게 되는데 이것이 方形 안에서의 十字形이 되는 것이다.

십자형은 천문학 지식의 확장에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십자형은 점차 불멸성을 상징하는 신비적 기호로 발전되어³⁵⁾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은 정방형 안에 표시된 십자형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능을 보

<표 1> 동·서양에서의 十字의 상징적 의미 비교

동양의 십자	상징적 의미	국 가	서양의 십자	상징적 의미	국 가
	2개의 막대(불의신)	페르시아		천국에 오르는 계단	스칸다나비아
동서의 가로축과 남북의 세로축(우주삼라만상)	한국	남성과 여성	에집트		
비 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십승지=십(모든것을 완벽하게 갖춘)+승지(살기좋은 곳)=이상세계		비 고	모든 것을 품어 안음	

왔고, 에트루리아인들도 그들의 도시나 사원을 십자형으로 배치하였다. 비잔틴 건축에서는 신의 형상으로 교회의 평면도가 사각형으로 그려져 그 사각형의 좌우상하에 십자가 모양의 회랑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것이 동양에서는 우주의 만물, 만상은 모두 고유의 리와 氣와 象을 갖고 있는 고로 물체의 형상에는 그 형상에 상응하는 기상과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³⁶⁾고 보는 풍수설로 대두된 것이다. 풍수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道에 합치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우리민족의 지혜³⁷⁾가 되었고,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되어 심지어 우리 전통적 문살에도 辟邪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格子(井)문살, 무한 장구와 吉祥萬德을 의미하는 亞자문, 근자문³⁸⁾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십승지의 상징성을 볼 수 있다.

3. 저고리 마름질 꼴과 십승지와 유사성

저고리가 시대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한 특성과 모습이 쉽게 발견되는 것은 변화의 요인이 의복자체의 내적 분화이던 외적 무엇이던 간에 구성상 사각형이라는 핵에 해당하는 작은 공간단위가 증식과 분화를 통해 복합 구성으로 확장되어 이 과정에서 규범성과 가변성이 동시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규범성은 핵이 사각형이라는 사실과 증식분화가 마름질에서 나타나는 十字軸을 따라서 일어나 전체윤곽의 정형성을 이룸으로써 전통복식이라는 전형을 유지 형성했다고 본다. 즉 저고리는 사각형이라는 공간 단위가 증식 분화하면서 제도되는데 이때 도상으로 나타난 것이 '田'의 꼴이다. 이 규범성에 가변성이 더해져 옷본이 완성되는

데, 옷이 옷다운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된 옷본을 이용하여 옷감에다 배치를 한 후 마름질을 하고 바느질로 완성한다. 우리나라 저고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전통의복 구성과 실루엣은 유사하지만 부분적인 면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옷은 기본 틀이 되는 方形에서는 같으나 결섵, 안섵을 부착하였을 때의 앞트임과 둥근 목둘레가 다르고, 일본의 옷은 앞길과 뒷길이 연이어 마름질함으로써 어깨솔기가 있는 우리나라 구성법과는 다르다. 이것은 우리저고리에 은유되어 있는 십승지의 상징을 풀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저고리를 마름질 했을 때 나타난 부분들은 크게 앞·뒤 길과 소매, 또는 몸판과 소매로 분류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솔기는 등솔과 어깨솔이 있다. 원래 저고리에는 길의 좌우가 분리되고 전후가 연결되어 어깨솔이 없는 것이 원칙 이었다.³⁹⁾ 節儉과 근면이 덕목이었으므로 옷감을 아껴 쓰고 창의적으로 재생활하기를 즐겨하였던 조선시대에는 재단을 직선으로 하여 옷감을 낭비하지 않고 시접을 여유 있게 두어서 품과 길이를 성장이나 체격변화에 따라 조절하여 바느질 하고 가장자리의 헤어짐에 대비하도록 하였다.⁴⁰⁾ 그러나 <조선봉재전서>에는 길이 좌·우로 분리된 형과 전후좌우가 연결된 형이 보인다⁴¹⁾고 한 것으로 보아 어깨솔은 조선후기에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십승지에 의미를 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저고리에서 솔기가 생기게 되는 데는 옷감폭이 넉넉하지 못할 때, 또 성장에 따라 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 솔기를 굳이 두지 않고도 저고리를 마름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솔기가 들어가도록 구성됨은 도참설과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즉, 사각형 안에 십자가 들어가면 '田'모양이 되는데 이는 저고리를 마름질 할 때 접은 모양으로,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口'가 분화되어 '田'이 되는 것이다. 이 田을 풀어가는 것이 십승지에 대한 핵심적 상징내용인 弓弓乙乙 田田이다. 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만사형통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땅이라는 의미 즉 십승지로, 저고리 마름질에 吉地에 이르는 弓弓乙乙 田田이 은유되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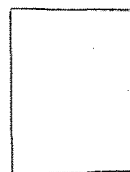
弓乙에서 활 弓자는 하늘을 의미하며, 새乙형자는 땅을 의미한다. 弓乙이 곧 天地인 것이다. 또한 弓弓에서 弓과 弓의 등을 맞대어 합하면 十자 모양의 田자나 나온다.

乙乙에서도 乙과 乙을 중첩으로 합치면 十자 모양의 田자가 나온다. 弓弓 乙乙 田田의 이치에서도 十자 모양이 나오는데,⁴²⁾ 이것이 吉地라는 것이다. 이 弓弓 乙乙 田田이 우리저고리 마름질과정에서는 어떻게 은유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 1>부터 <그림 8>까지는 격암유록 속의 십승지와 저고리 옷 꼴에서 고찰된 십승지를 그림(강덕영해역, 격암유록 참조)으로 비교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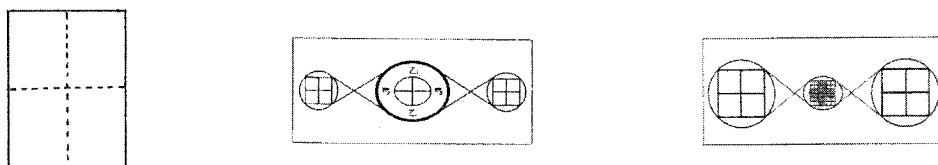
대부분의 옷은 마름질과정에서 보면 사각형의 옷감에서 출발한다<그림 1>. 그러나 조형미가 두드러진 서양 옷 구성과는 달리 동양의 옷은 선 자체를 이용하여 인체를 감싸듯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저고리는 가능한 인공의 흔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시키려고 한다. 즉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해 있는 자연주의 심성과 소박한 미의식이 자연적으로 표출된 현상⁴³⁾이다. 옷본이 없는 재래식 방법의 마름질은 앞·뒤 길이가 되는 세로로 먼저 접고 나서 좌우 어깨솔이 되는 가로로 접는데<그림 2>. 이 방법은 앞트임과 등솔 부분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앞트임을 위한 가위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깎고대 가위질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것은 십승지에서 <奎 字十口入兩弓間生不如修道正己>라고 하여 '田'이라고 소리가 나는 글자는 田이며 黑十字도 아니고 白十字도 아닌 사이에서 그냥 살려고 하는 것은 수도하여 자기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보다

도 못하다"는 것으로, 옷감을 접어 두기만 하면 본래 있는 그대로 보다 나올 것이 없다⁴⁴⁾ 고 하는데 이는 신성한 곳을 그냥 두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생각 없이 살기보다 바른 삶을 살기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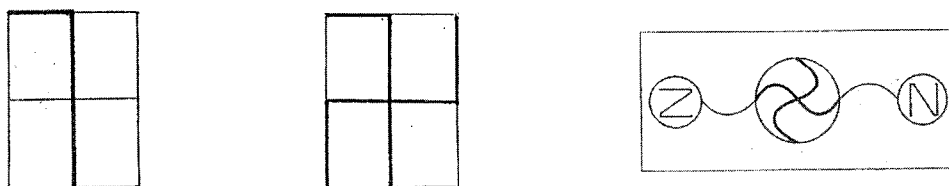


<그림 1> 저고리 감 ⇒ 입口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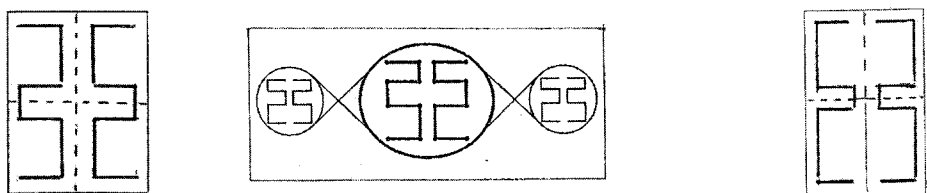
<그림 2>⁴⁵⁾는 마름질의 1단계가 끝나고 펼치면 앞뒤 길과 좌우 어깨선이 표시되는데, 이것이<十極世界蓮花臺>⁴⁶⁾로 '십은 숫자의 끝이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無極이니 우주만물의 근본인 태극을 잉태한 숫자로 新天地가 시작됨을 의미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인체를 소우주와 같다고 보는 상징성에서 비로소 어떤 형태가 결정됨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弓乙歌'에서 궁과 을은 犬과 地로 田을 만들며, 田 속에 十字가 있으니 이는 田田歌⁴⁷⁾로써 말하고자 하는 십승 진리로, 이것은 마음의 밭을 잘 일구고 깨우쳐야 한다는 뜻이다. 田을 破字하면 小口가 넷, 大口가 하나로 전부 五口가 되며, 여기에 마음(心)을 합쳐 보면 悟(깨달음)가 되고, 心과 田을 합치면 嵬가 되어 형통하고 순조로움이 田속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 '사람의 본성과 진리를 깨달으면 통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은 입이 네 개 합쳐서 몸이 된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면 예의엄치를 알게 되는 밭으로써 네 입의 사이에서 십자가 나오며 육신의 찌든 때를 씻는 목욕탕이다.'<性理之覺無願不通 四口合體人體之田 四口之間出於十字 骸垢洗淨沐浴湯> 라고 하였다. 신성한 네모 즉 입口자는 十을 품음으로써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데, 삶은 정신과 육신을 닦아가는 정진이며 수도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이것을 마름질에 적용해 보면 옷이 그 사람에게 맞게 만들어짐은 적절한 크기, 적절한 시점이 주어졌을 때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저고리 꼴과 弓乙歌, 田田歌, 격암유록 (2006), p. 160, p. 214.



〈그림 3, 4〉 저고리꼴과 乙乙歌, 격암유록 (2006), p. 213.



〈그림 5〉 저고리완성선과 弓弓歌(亞字), 격암유록 (2006), p.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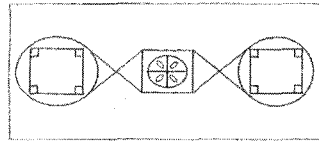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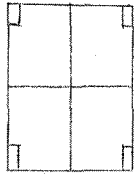
〈그림 6〉 저고리완성선과 마주보는 弓, 격암유록 (2006), p. 212.

〈그림 3〉⁴⁸⁾은 앞뒤중심선을 접어 뒷도련 앞도련을 연결하여 펼친 형상인데 격암유록에서 이것은 乙이 되며, 乙은 地上의 고해에서 하느님의 진리로 깨우쳐서 자유로움을 의미 한다.⁴⁹⁾ 또 〈乙乙四乙轉背四方之間〉으로 '乙乙을 가로 세로 합치면 卍이 되어 卍자가 생기고 四개의 乙을 등을 돌려가면서 쓴 (亞) 四方의 사이에도 역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卍자가 있다⁵⁰⁾고 한 것은 저고리에서는 〈그림4〉⁵¹⁾에서와 같이 뒤 왼쪽도련에서 앞뒤 중심선을 지나 앞 오른쪽 도련으로 이어지고, 좌우 옆길과 진동선이 좌우 어깨솔기를 지나게 되면 (卍字)를 이루게 되는 기호가 된다. 이것은 접어서 마름질을 할 때에 위에 그리는 완성선과 아래에는 나타나지 않은 구성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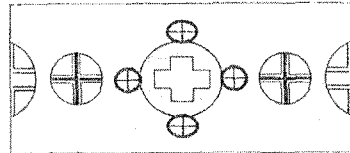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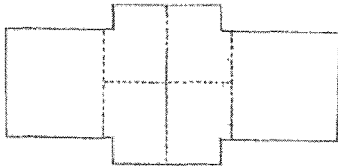
〈弓弓雙弓左右背弓之間〉 弓弓이 좌우로 등을 돌린 弓의 사이에는 불이 있으며 그 속에 卍자가 있고 이것은 “쫄쫄田田처럼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완

전히 믿을 수 있는 卍字라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궁이 등을 맞대고 있는 것=불)은 卍十勝眞理이며 四弓은 불과 工(궁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된다고 함⁵²⁾은 이것은 저고리에서 좌우 길을 접은 상태에서 뒤 도련, 뒤 옆길과 진동선 뒤 어깨 완성선, 앞 어깨 완성선, 앞뒤 중심 어깨솔, 진동선과 옆길까지를 활弓자〈그림 5〉⁵³⁾로 표현한다. 볼 수 있는데 이 활弓자 두개가 등을 돌리고 합해지면 백십자 모양이 되는데 이 卍은⁵⁴⁾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中單에도 文彩하여 이용하기도 했다. 또, 住居에서는 문살에서, 珠簾에서 자주 이용되는 文彩이기도 했다. 〈工〉은 활弓자를 마주보게 한 것으로〈그림 5〉 뒤 도련과 앞도련 중심에서 등솔 선으로 이어지는 형상으로 나타나고 궁이 마주 보게 되는 것과 같다. 工, 즉 十勝神工夫가 되는 것으로 깨달으면 진리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림 7〉⁵⁵⁾은 落盤四乳로, 사방이 연결되고 만나는 모양(口)에서 네 모서리가 비고 이지러지면 십자가



〈그림 7〉 저고리 꼴과 落盤四乳歌(큰 십자), 격암유록 (2006), p. 216.



〈그림 8〉 저고리 꼴과 白十地(十勝地), 격암유록 (2006), p. 224.

나오는데 이것은 오묘하고 심원한 이치로서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四方連交四角虛虧出於十字奧妙遠理世人難知〉 또 精이란 글자에서 그 오른쪽편을 탈락시키면 米란 글자가 남는데, 이는 밥상을 그린 그림에서 밥상이 높이 있고 네 모서리가 떨어지면 십자가 형상이 나오는 것으로 先師가 이를 일러 깨달은 자는 크나큰 복을 받으며 하나의 조선으로 태동 한다⁵⁶⁾〈精脫其行米盤之圖 落盤高四乳出於十字 先師此云覺者得福一鮮成胎〉 즉 落盤四乳가 弓乙乙이요, 그것을 풀어 알면 피난처이며 ‘十’이고, 새 乙字를 네 번 돌려써도 十勝이 나온다고 했다⁵⁷⁾

이것이 저고리 마름질에서는 〈그림 2〉의 저고리 몸판에서 앞뒤 좌우 겨드랑이를 오려 낸 것을 말하며 구성면에서 보면 소매를 달기 위한 것으로 앞에서의 십자 형상이 작은 십자 형상이었다면 〈그림 7〉의 십자는 큰 십자 형상을 띠게 된다.

그렇다면 백십자, 십승지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림 8〉⁵⁸⁾은 소매를 붙인 모습인데 저고리 만드는 과정에서 두루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백십자는 저고리구성 자체가 백십자이며 십승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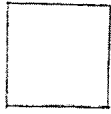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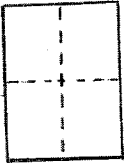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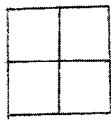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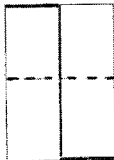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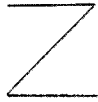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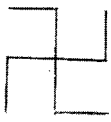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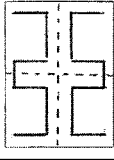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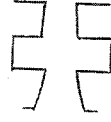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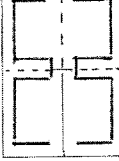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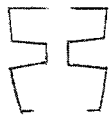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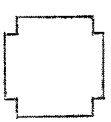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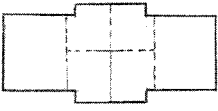

이상에서 우리 옷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을 저고리의 마름질법과 십승지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저고리 감일 때는 흑 십자도 아니고 백 십자도 아닌 무의미한 상태이던 것이 저고리 감을 전

후좌우로 접으면 밭田자이면서 5개의 입口자가 되어 만사형통하고 순조로우며, 앞뒤중심선을 접어 뒷도련, 앞도련을 연결하여 펼치면 새乙자 모양이 되어 땅을 상징하게 되며, 앞뒤 좌우 중심을 접어 시침을 하게 되면 쌍乙이면서 卍자로 십승 진리를 나타내며, 앞뒤 중심의 완성선과 어깨, 앞뒤도련 완성선을 연결하면 卍자가 마주보는 형상으로 卍자인 진리가 은유되어 있고, 몸판에서 품과 진동이 만들어짐은 米자 형상을 하여 깨달은 자를 말하는 큰 십자로 십승지=이상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의미하던 입口가 修道 精進하면 십승진리인 길지=이상세계를 만날 수 있듯이 하나의 천조각도 만드는 사람의 기교와 정성이 들어감으로써 몸을 보호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는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림 9〉는 저고리 마름질에서 은유된 십승지와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십승지의 기호학적 유사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해 본 것이다.

IV. 결론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의한 생활양식을 표현한 복식은 시대에 따라 그 기본구조에 조형성과 상징성이 가미되고 발전되어 한 나라의 민족복으로써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에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사상이 반영되어 상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음을 보

그림	저고리	설명	십승지	설명	비고
1		사방이 연결된 저고리 감		입 □자	흑십자도 아니고 백십자도 아님⇒무의미
2		네모의 저고리 감을 좌우, 전후로 접음		밭 田자	5개의 입 □자 ⇒형통하고 순조로움
3		앞뒤중심선을 접어 뒷도련, 앞도련을 연결하여 펼침		새 乙자	땅을 상징
4		앞뒤, 좌우 중심 시침		쌍 乙	근자⇒십승진리
5		앞,뒤 중심의 완성선과 어깨, 앞뒤도련 완성선 연결		활 弓자가 등을 맞대고 있음 (亞자)	하늘상징⇒백+자⇒ 吉地
6		앞뒤도련, 앞뒤진동선과 깃고대선을 제외한 좌우어깨완성선 연결		弓자가 마주봄	工자⇒진리
7		몸판에서 품과 진동이 만들어 짐		낙반사유⇒미자 (깨달은자)	큰+자⇒십승지
8		몸판에 소매를 붙임		1·자	십승지⇒이상세계

<그림 9> 저고리마름질 꼴과 십승지와와의 기호학적 유사성 비교

여 준다. 특히 '남사고'가 살았던 조선중기는 十禍와 兩亂으로 인해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백성들은 편히 살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 秘機가 보다 성행하게 되었는데 이중 하나가 '격암유록'이다.

격암유록은 내용 중에 인간이 염원하는 어떤 곳을 十勝地라는 상징적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곳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는 안식처이면서 경계를 뛰어 넘는 吉地를 지칭하기에 인간들은 그러한 이상향을 꿈꾸면서 난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이 있어 십승지설이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형식과 규범이 절대적 권위와 의미를 갖는 경직된 사회의식에 억눌렸던 잠재된 욕망의 표출의지가 避亂, 保身の 장소를 지향하게 했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이를 잊고자하는 대안으로 이상세계를 더욱 念願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十”이라는 상징적 기호를 통해 이를 보다 분명히 이해시키려고 했던 같다. “十”이라는 기호는 기원전에서부터 상징적 의미를 가져왔으나 특히 동양에서는 태극도설이나 음양오행설이 생활철학이었기 때문에 ‘十’은 인체이면서 하늘을 본뜬 소우주라고 보아 인체를 담은 옷 꼴에는 우주와 합일하려는 염원이 構造 속에 현현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저고리 옷 꼴에서 고찰된 십승지는 저고리의 옷 꼴을 만들어 내는 마름질과정에 은유된 것으로 口, 田, 弓, 乙, 工 이라는 기호로써 이들은 모두 “十”을 내포하고 있다. ‘十’은 풍수적으로 吉地로 비유되며 또한 ‘十勝地’로도 말해진다. 이 ‘十勝地’가 우리 한복 저고리마름질 꼴에 은유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즉 ‘인간 자신이 吉地이며, 이상향인 ‘十勝地’라는 것을 示唆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주 합일과 인간이 추구하는 理想郷이 우리 저고리 옷 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 吉地이고 십승지라고 보는 교훈적 가치로 모든 것은 내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1) 한명숙 (1996). *유행과 문자의상체계*. 서울: 경춘사, p. 7.
- 2) 김진구, 정현숙 (2004). *복식문화연구*, 1(2), pp. 221-223.
- 3) 박경자 (1983). *한국복식 논고*. 서울: 신구문화사, pp. 145-149.
- 4) 이재일, 박춘순 (1993). 우리나라 기너복식의 기호학적 접근. *복식*, 6(22), pp. 297-312.
- 5) 정옥임a (2003). 남자 한복바지구성의 상징성 연구. *복식문화학회*, 11(3), pp. 367-374.
- 6) 정옥임b (2004). 喪服에서의 상징성 연구. *복식*, 54(4), pp. 55-62.
- 7) 정혜경, 권영숙a (1991). 易을 통하여 본 십의의 상징성. *복식*, 4(16), pp. 75-82.
- 8) 정혜경, 권영숙b (1998). 조선시대 저고리의 구성 원리에 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12(1), pp. 67-73
- 9) 박경자. *앞의 책*, p. 145.
- 10) 신혜순 (2004). *아름다운 우리 저고리*. 서울: 문화미디어, p. 6.
- 11) 국립민속박물관 (2003). *생활 속에 담긴 우리옷의말차취*. 서울: 신유문화사, p. 93.
- 12) 백선기 (2004).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 284.
- 13) 민중서림편집국편 (2004).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p. 398.
- 14) David Fontana 저, 최승자 역 (2001). *상징의 비밀*. 서울: 문학동네, p. 8.
- 15) 김경용 (1995). *기호학이관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 11.
- 16) 기호학연대 (2003). *기호학으로 세상읽기*. 서울: 소명출판, p. 144.
- 17) 한명숙 (1996). *유행과 문자의상체계*. 서울: 경춘사, p. 7.
- 18) 정옥임b. *앞의 책*, p. 61.
- 19) 마루야마 도시야끼, 박희준 옮김 (1989). *기관 무엇인가?* 서울: 정신세계사, p. 164.
- 20) 임영자, 문공화 (2002). 한복구조에 나타난 옷감과 옷꼴에 관한 연구. *복식*, 52(3), p. 152.
- 21) 여동빈 저, 이윤희, 고성훈 공역 (1992). *태을 금화종지*. 서울: 여강출판사, p. 197.
- 22) 마루야마 도시야끼, 박희준 옮김. *앞의 책*, p. 166.
- 24) 김두규 (1998). *우리땅, 우리풍수*. 서울: 동학사, p. 288.
- 25) 한국도교사상연구회편 (1996). *도교의 한국적 변용*. 서울: 아세아문화사, p. 378.
- 26) <http://yahoo.com>. 백과사전, 비기.
- 27) 한국도교 사상연구회편. *앞의 책*, p. 419.
- 28) 이규태 (1987). *입술의 한국학*. 기린원, p. 153.
- 29) Mircea Eliade. 이재실역 (2005). *이미지와 상징*. 서울: 까치글방, p. 177.
- 30) 이규태. *앞의 책*, pp. 153-154.
- 31) Mircea Eliade. 이재실 역. *앞의 책*, p. 46.

- 32) Mircea Eliade (1956). 이용주 옮김 (2006). *세계종교사상사*. 서울: 이학사, p. 95.
- 33) Mircea Eliade, 이용주 옮김. *위의 책*, p. 95.
- 34) Mircea Eliade. 이용주 옮김. *위의 책*, p. 94. pp. 134-135.
- 35) Mircea Eliade (1956). 이용주 옮김. *위의 책*, p. 95.
- 36) 최창조 (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두고 말할인가*. 서울: 서해문집, p. 184.
- 37) 최창조. *위의 책*, p. 187.
- 38) 허균, 이경재, 이갑철 공저 (2004). *선인들이 남겨 놓은 삶의 흔적들*. 서울: 다른세상, pp. 67-69.
- 39) 정혜경, 권영숙b. *앞의 논문*, p. 39.
- 40) 박경자. *앞의 책*, p. 148.
- 41) 정혜경, 권영숙b. *앞의 책*, p. 42.
- 42)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2006). *격암유록*. 서울: 동반인, p. 52.
- 43) 오이환 편저. *앞의 책*, p. 167.
- 44)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앞의 책*, p. 112.
- 45)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위의 책*, p.160, p214.
- 46)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위의 책*, p. 131.
- 47)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위의 책*, p. 157.
- 48)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위의 책*, p. 160.
- 49) 남사고저, 신유승 해독 (1994). *격암유록(1)*. 세종출판, p. 154.
- 50)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위의 책*, p. 113.
- 51)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위의 책*, p. 214.
- 52) 남사고저, 신유승 해독. *앞의 책*, p. 154.
- 53)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앞의 책*, p. 212.
- 54) 고광림 (1990). *한국의 관복*. 서울: 화성사, p. 53.
- 55)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앞의 책*, p. 216.
- 56)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위의 책*, p. 72.
- 57)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위의 책*, p. 216.
- 58) 남사고전수, 강덕영 역. *위의 책*, p. 224.